

# 마운드서 쓴 '천일野화'

**KIA 임창용, 오늘 한·미·일 통산 1000경기 출장**

KBO 755·NPB 238·MLB 6 등 999경기 치러  
3개 리그 경험 박찬호·이상훈 등 제치고 첫 기록  
최연소 구원왕·최초 3년 연속 30세이브 등 기록  
오늘 삼성전 선발... 상위권 도약 순위싸움 '키맨'



■ KBO 중간순위 (17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125	82	0	43	0.656	0.0
2	SK	124	69	1	54	0.561	12.0
3	한화	126	68	0	58	0.540	14.5
4	넥센	129	66	0	63	0.512	18.0
5	LG	128	63	1	64	0.496	20.0
6	KIA	121	58	0	63	0.479	22.0
7	삼성	128	59	3	66	0.472	23.0
8	롯데	121	52	2	67	0.437	27.0
9	NC	127	54	1	72	0.429	28.5
10	KT	125	51	2	72	0.415	30.0

KIA 타이거즈의 '만형' 임창용이 자신의 1000번째 경기에서 팀의 '가을 잔치'를 타진한다. 임창용은 18일 삼성과 이온즈와의 원정경기 선발로 출격한다. 임창용이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한·미·일 통산 1000경기 기록이 완성된다. 임창용은 17일 현재 KBO 리그 755경기, 일본 프로 야구(NPB) 238경기, 미국 프로 야구(MLB) 6경기 등 3개 리그에서 999경기를 치렀다.

이상훈, 구대성, 박찬호 등이 한·미·일 프로야구를 모두 경험했지만 1000경기 출장은 임창용이 처음이다.

광주 진흥고를 졸업하고 1995년 해태에 입단한 임창용은 1998년 12월 삼성으로 트레이드된 뒤, 일본과 미국을 거쳐 지난 2016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1000경기를 달리는 동안 의미 있는 기록들이 쌓였다. KBO리그에서만 18시즌을 뒀 임창용은 1698이닝을 던져, 128승 85패 258세이브 19홀드 1448탈삼진 평균자책점 3.44를 기록하고 있다. 22세이던 1998년 34세이브로 '최연소 구원왕'에 오르는 등 3차례(1998·2004·2015년) 세이브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최연소 100세이브(23세 10개월 10일), KBO 최초 3년 연속(1998-2000) 30세이브,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 기록(42세 3일)에도 이름을 남겼다.

1999년에는 평균자책점 2.14로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2008년 NPB에 진출한 임창용은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5시즌 동안 238경기 233이닝 11승 13패 128세이브 173탈삼진 평균자책점 2.09를 기록했다. 2009시즌에는 개막 후 33경기(33.2이닝)에서 무자책 행진을 하며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3년 꿈에 그리던 MLB에 진출, 시카고 컵스 소속으로 6경기 5이닝 5탈삼진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했다. 임창용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14번째 한국 선수이자 최고령 선수로 기록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도 맹활약했다. 임창용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픽 동메달, 1998 방콕·2002 부산·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9년 WBC 준우승 현장에 있었다.

임창용은 "그동안 믿고 기용해주신 감독님 및 코칭스태프와 동료, 선배, 팬이 있어 가능했다.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최대한 즐기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가 담긴 1000번째 경기 날은 가을 잔치의 향방을 가을 중요한 무대이기도 하다.

KIA는 나지완의 5안타 활약 속에 16일 SK에 끝내기 승을 거두며 6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1경기 차 7위 삼성과 18·19일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다. KIA는 삼성에 올 시즌 5승 8패로 열세다. 가장 최근 대결에서는 헛타가 한승택의 만루홈런을 지키지 못하고 승리를 내줬다.

이후 광주에서 만나는 NC 다이노스와 주말 대전에서 상대하는 한화 이글스는 '어려운 그들'이다.

KIA는 앞선 마산 원정에서 버나디나의 2년 연속 '20·20'과 유민상의 9회 2사 동점 스리런에도 2패를 기록했다. NC전 5연패 등 5승 8패. 한화와의 상대 전적은 3승 8패로 독 떨어진다.

임창용이 위기의 마운드를 지키기 위해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한다. 팻데이 선발에서 탈락하면서 '예비역' 전상현이 선발 테스트를 앞두고 있고, 벤치의 주먹구구 운영에 불펜의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다. 끝내기 승에 몰렸지만 김윤동의 과부하가 심각하다.

김윤동은 16일 경기에도 투입되면서 3연투 포함 최근 1주일 동안 5차례 마운드에 올랐다. 투구수는 142개.

마무리 윤석민의 어깨와 성적이 오락가락하고, 김세현은 7.00의 평균자책점을 찍고 있다. 김윤동-임기준에 역할이 집중되는 등 올해도 불펜 운영은 KIA 약점이 되고 있다.

임창용이 베테랑의 힘으로 승리의 1000번째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아깝다! 김세영

에비앙 챔피언십 1타차 공동 2위



김세영(25)이 여자골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385만 달러)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김세영은 지난 16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1오버파 72타를 쳤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우승자 앤절라 스탠퍼드(미국)와 1타 차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스탠퍼드는 12언더파 272타의 성적으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57만7500 달러(약 6억4000만원)다.

스탠퍼드는 에이미 울슨(미국)에게 1타 뒤진 상황에서 먼저 경기를 끝냈다.

하지만 13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달리던 울슨이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티샷이 왼쪽으로 크게 휘어지고, 레이업으로 꺼낸 공도 그린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세 번째 샷 만에 공을 그린에 올린 울슨은 파 퍼트, 보기 퍼트가 모두 빗나가며 마지막 홀에서 더블보기에 그쳐 스탠퍼드가 이번 대회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다. 울슨과 모 마틴, 오스틴 언스트(이상 미국)가 김세영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이정은(22)이 10언더파 274타로 공동 6위, '골프 여제' 박인비(30)는 9언더파 275타로 공동 8위를 각각 기록했다.

극적인 승부였다. 8번 홀(파3)에서 공동 선두로 나섰던 김세영은 9번 홀(파5)에서는 약 2m 짧은 버디 퍼트를 남겨 역전에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김세영의 이 역전 버디 퍼트가 빗나가면서 오히려 김세영의 기세가 꺾였다.

한편 올해 5대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에게 주는 볼렉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도 US오픈을 제패한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 강정호를 어이할꼬

피츠버그, 옵션 행사 놓고 잔류 vs 방출 고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구단이 고민에 빠졌다. 내야수 강정호(31)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결별할지를 두고 냉정한 결정에 직면했다.

MLB닷컴은 17일 피츠버그 구단의 강정호 옵션 실행과 관련한 소식을 다뤘다.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며 옵션 실행 가능성에 말을 아꼈다.

류현진에 이어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두 번째 KBO리그 선수인 강정호는 2015년 피츠버그와 '4+1년' 조건에 계약했다.

2015~2018년 계약 기간 4년 연봉과 2019년 바이아웃 옵션(구단이 재계약을 포기할 때 받는 돈) 100만 달러를 포함해 1100만 달러를 보장받았다.

2019년 구단이 옵션을 행사해 계속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으면 강정호는 연봉 550만 달러를 받는다. 이 옵션 행사를 두고 피츠버그가 고민하는 셈이다.

헌팅턴 단장은 "강정호가 그간 열심히 훈련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며 지금도 열심히 재할 중이다. 스윙 훈련을 시작했고 조만간 구단 재활 시설에서 타격 연습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홈런 15개와 타점 58개, 2016년 홈런 21개와 62타점을 수확한 강정호가 이 기량을 다시 선보일 수 있다면 자신과 피츠버그에 모두 득이 된다. 그러나 구단의 기대를 밑돌면 여쩔 수 없이 다른 팀을 알아봐야 하는 게 강정호의 처지다.

/연합뉴스